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초등 지리 교과서의 특징

- 일제 식민화의 합리화 관점에서 -

양 병 일*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Textbook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Rationalization of Japanese Colonization -

Byung Il Ya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지리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지리 교과서 내부에 포함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당시 지리 교과서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규정했던 조선교육령을 바탕으로 주요한 분석 대상의 지리 교과서를 도출하고, 그 내용 요소들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과학적 자료의 사용, 교수학습 방법의 최신성을 이용해 지리 교과서의 교육적 권위가 강화되었다. 두 번째로 식민지 관련 서술에 근거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식민지의 확보가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전제가 지리 교과서 내부에 형성되었다.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제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의 식민화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일제 식민화와 지역 발전의 긍정적 관련성이 대조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일제의 식민화를 합리화하는 지리 교과서의 도구적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주요어: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 상호작용, 식민화의 합리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textbooks based on how the elements included in the geography textbooks are interrelated by analyzing the national geography textbook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the Joseon Education Imperial Order, this study derives the geography textbooks of the main analysis target and analyzes the content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authority of geography textbooks was strengthened by using the use of scientific data and the latest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cond, based on colonial-related descriptions, the premise that securing colonies is natural and inevitable for national development was formed inside the geography textbook. Third, based on the first and second premises, the negative description of European colonization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colo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ere presented in contrast, maximizing the instrumental effect of the geographical textbook to rationalize Japanese colonization.

Key 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geography textbook, interaction, rationalization of colonization

*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iyang@bnue.ac.kr

I. 서론

일제는 경술국치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이전부터 통감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식민지 교육에 특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 229호로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朝鮮總督府官報第三百四號, 1911.9.1.)은 식민지 조선의 학교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교육문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교육령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는 다양한 교과가 가르쳐지게 되지만 그 중 세계의 정세와 국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교과는 지리가 대표적이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 초기 서구열강의 적극적인 식민화 정책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민화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일본 제국의 영토를 국토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적 시도가 지리 교과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 교육에서 교과서가 국민교화의 정화로 기능하며 식민화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관건이 되었던 것(장미경, 2016: 105)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 교과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는 국정제를 기반으로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지리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리 교과서의 내용분석(이병담, 2010; 사회영, 2015), 삽화 분석(신수경, 2009), 다른 교과와의 횡적 분석(유철·김순전, 2018),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과서 정책 변화의 일부로 지리 교과서의 분석(허재영, 2009; 김진숙, 2012)을 시행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는 각 연구가 취하는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리 교과서의 내용 요소가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 지리 교과서에서 식민화와 관련된 세계정세가 강조되고 국토를 일본 제국의 영토로 규정해 일제의 우리나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적인 지리 서술이 아니라 지리 교과서에 담겨있는 서술, 삽화, 지도, 사진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발휘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와 같이 지리 교과서 내의 요소를 분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리 교과서의 각 구성 성분이 다른 성분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일제의 의도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일제의 의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서의 지리 교과서가 가지는 특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관점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지리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지리 교과서 내부에 포함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당시 지리 교과서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학교 교육을 규정했던 조선교육령을 바탕으로 주요한 분석 대상의 지리 교과서를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일제 의도의 반영이라는 지리 교과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 교과서 내부에 형성된 전제를 내용분석으로 밝혀낸다. 세 번째 단계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밝혀낸 전제와 지리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민화 합리화 내용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일제의 의도가 극대화되는지 설명한다.

II. 일제강점기 사용되었던 국정 지리 교과서

1. 분석 대상으로서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제작된 지리 교과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식민지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체제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조선교육령은 당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목적, 구성, 편제, 운영 등을 규정하는 근본적 교육문서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교육령은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부터 1945년 5월 21일 칙령 제320호에 의해 전시교육령(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45.7.1.)이 공포되기까지 추가로 2차례의 전면 개정과 3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다.

조선교육령은 당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각 개정 시기별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1차 조선교육령은 이후의 조선교육령과는 달리 전체 구성이 강령과 학교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령에는 제정 당시부터 칙령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3조가 포함되어 있다(강명숙, 2007: 11). 구체적으로 제3조의 내용은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教育八時勢及民度ニ適合セシムルコトヲ期スヘシ)’이며 이 조항에서 초점이

되는 문구는 ‘시세와 민도’이다. 이 조항에 관해 조선 아동을 차별적으로 교육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박제홍, 2018: 168)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학교 교육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점진주의적 동화 방식이 구현된 것으로 보는 견해(久保田優子, 2000: 20)가 있다. 후자에 근거하면 제1차 조선교육령의 시세와 민도와 관련된 조항에는 일본 본국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지는 일본 내의 주장에 대해 조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제도 구성의 원리를 개발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 실무 관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령의 조항에 반영된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당시 출간된 지리 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될 당시 우리나라의 보통학교는 4년제로 지리가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후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7호로 부분 개정(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2.2.6.)이 이루어 짐에 따라 보통학교가 6년제로 변화하고, 지리는 5학년과 6학년에 가르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국정 지리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르쳐지는 지리 교과서가 지리 수업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 수업이라는 상황이 반영되어 일본의 지리 교과서와 더불어 『심상소학교지리서보충교재아동용(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兒童用)』(1920)과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전아동용(普通學校地理補充教材全兒童用)』(1923)이 사용되어 우리나라 지리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922년 칙령 제17호로 제2차 조선교육령(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2.2.6.)이 공포되고, 1929년에는 칙령 제82호로 제2차 조선교육령의 부분 개정(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9.4.19.)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을 위한 정규 국정 교과서, 『초등지리서권1(初等地理書卷一)』(1932), 『초등지리서권2(初等地理書卷二)』(1933) 그리고 『초등지리권1(初等地理卷一)』(1937a) 및 『초등지리권2(初等地理卷二)』(1937b)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시기 제작된 지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리 수업이라는 상황이 반영되어 지리 교과서의 시작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지리서권1의 첫 번째 장인 ‘우리나라’는 3페이지로 구성되며, 일제의 영토, 면적, 국민, 지역 구분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1장에 이은 2장에는 일

본의 본토가 아닌 조선 지방에 관한 지리 내용이 등장하며, 조선 지방에 관한 설명의 양도 39페이지로 초등지리서 권1과 권2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1938년 칙령 제103호에 따라 전면 개정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조선교육령(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38.3.4.)이 공포되고, 1945년에는 전시교육령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부터 전시교육령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지리 교과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함은 물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제는 본국과 식민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집결시키기 위해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1938.3.31.)을 제정했으며, 이는 곧 학교 교육에 있어 ‘결전비상조치요강에 근거한 학도근로동원에 관한 건(決戰非常措置要綱ニ基ク學徒勤勞動員ニ関スル件, 1944.4.17.)’ 등의 형태로 영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불어 한편의 연구로 당시 초등 및 중등 지리 교과서의 특징을 모두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는 국정 지리 교과서가 간행된 당시의 초등 지리 교과서로 연구영역을 한정한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될 당시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은 보통교육이었으며,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통학교의 명칭을 보유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였다. 통감부 시기의 조선에는 중등교육을 담당한 중학교가 존재했지만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보통교육 단계에 묶어둠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조선인의 열망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의도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강명숙, 2009: 22). 이와 같은 학교급의 체계와 명칭은 이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됨에 따라 보통교육의 학교가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변경되고, 1941년 2월 28일 칙령 제148호로 국민학교령(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41.3.31.)이 공포됨에 따라 초등수준의 보통교육은 국민학교초등과와 국민학교고등과로 변화를 겪는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본 연구는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소학교, 국민학교에서 활용된 지리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3차 조선교육령(1938)으로부터 전시교육령(1945)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지리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작된 지리 교과서는 『초등지리권1(初等地理卷一)』(1940, 1942a), 『초등지리권2(初等地理卷二)』(1941, 1942b, 1943), 그리고 『초등지리제5학년용(初等地理第五學年用)』(1944a), 『초등지리제6학년용(初等地理第六學年用)』(1944b)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지리 교과서로 상술한 4개의 교과서를 채택한다. 단, 초등지리권1과 초등지리권2의 경우 발간 연도에 따라 2-3권이 존재하므로 1940년의 초등지리권1과 1941년의 초등지리권2를 주요 분석 지리 교과서로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42년의 초등지리권1은 1940년 출간된 초등지리권1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1942년의 초등지리권2 역시 1941년 발간된 초등지리권2의 서

술을 근간으로 삽화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1943년의 초등지리권2는 1942년 발간된 초등지리권2의 내용 제시 순서가 일부 변경되거나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및 생략되는 방식으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1941년의 초등지리권2가 1942년 및 1943년에 출간된 초등지리권2에 대한 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 교과서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초등지리권1, 권2 그리고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의 두 교과서 그룹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 발간된 지리 교과서가 가지는 특징을 밝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연구법을 활용한다. 지속적인 비교연구법은 근거이론에서 활용되는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 대상의 일부를 또 다른 일부와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분석 대상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Merriam, 1998). 구체적으로 우선 분석 대상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특징적인 일부의 내용을 발견한다.

표 1. 초등지리권1, 권2 목차 일부 및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 목차의 번역

<초등지리권1>	<초등지리권2>	<초등지리제5학년용>	<초등지리제6학년용>
<p>목록</p> <p>제1 대일본제국</p> <p>제2 조선 지방</p> <p>갑 위치·면적·주민 및 구분을 지방지</p> <p>1. 북부조선</p> <p>(1) 구역</p> <p>(2) 지형</p> <p>(3) 기후</p> <p>(4) 산업</p> <p>(5) 교통</p> <p>(6) 상업</p> <p>(7) 주민·도읍</p> <p>2. 중부조선</p> <p>3. 남부조선</p> <p>병 총설</p> <p>.....</p> <p>제3 사할린지방</p> <p>.....</p> <p>제9 주고쿠 및 시코쿠 지방 삽화목록</p> <p>.....</p>	<p>목록</p> <p>제10 규슈지방</p> <p>1. 위치·구역</p> <p>2. 지형</p> <p>3. 기후</p> <p>4. 산업</p> <p>5. 교통</p> <p>6. 주민·도읍</p> <p>7. 사쓰난제도·류큐 열도</p> <p>.....</p> <p>제18 아메리카 대륙</p> <p>1. 총설(1)</p> <p>2. 북아메리카주</p> <p>(1) 아메리카합중국</p> <p>(2) 캐나다</p> <p>3. 남아메리카주</p> <p>(1) 브라질</p> <p>(2) 아르헨티나</p> <p>(3) 칠레</p> <p>4. 총설(2)</p> <p>.....</p> <p>제21 일본과 세계</p> <p>제22 지구의 표면</p> <p>삽화목록</p> <p>.....</p>	<p>목록</p> <p>1. 일본의 지도</p> <p>2. 아름다운 국토</p> <p>3. 제국 도쿄</p> <p>4. 도쿄부터 고베까지</p> <p>5. 고베부터 시모노세키까지</p> <p>6. 규슈와 그 섬들</p> <p>7. 중앙 고지와 호쿠리쿠·산인</p> <p>8. 도쿄부터 아오모리까지</p> <p>9. 홋카이도와 사할린</p> <p>10. 타이완과 남양군도</p> <p>11. 조선</p> <p>12. 관동주</p> <p>13. 대동아</p> <p>14. 만주</p>	<p>목록</p> <p>1. 중국</p> <p>2. 인도차이나</p> <p>3. 동인도와 필리핀</p> <p>4. 인도와 인도양</p> <p>5.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p> <p>6. 시베리아</p> <p>7. 태평양과 그 섬들</p> <p>8. 세계</p> <p>9.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p> <p>10. 유럽과 아프리카</p> <p>11. 황국 일본</p>

출처: 朝鮮總督府, 1940; 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 1944a, 김순진 외, 2017b: 25; 朝鮮總督府, 1944b, 김순진 외, 2017b: 165.

다음으로 최초로 발견한 내용의 성격과 비교해 같거나, 상반되거나, 또는 상관성이 있는 내용을 추가로 발견하기 위해 교과서를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최초 발견한 내용 및 추가로 발견한 내용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내용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발견할 때까지 위의 과정이 지속해서 반복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조선교육령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음을 언급해 둔다.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시기와 관련해 조선교육령의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그리고 전시교육령을 일괄해 조선교육령으로 간주해 총 7차 또는 7기에 해당하는 조선교육령 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다양한 조선교육령 시기 중 제5차와 제7차 사이의 초등학교 국정 지리 교과서를 선택해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선교육령 본문에 조선교육령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 조선 총독의 유고(諭告)가 있는가를 바탕으로 조선교육령은 3차례의 전면 개정과 3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교과서 간행과 관련해 부분 개정은 전면 개정에 종속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조선교육령의 용어를 고유명사로 파악해 전시교육령을 조선교육령으로 바꿔 부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는 제3차 교육령 시기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시기의 초등학교 국정 지리 교과서를 연구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의 개관

초등지리권1과 권2의 목차(표 1)를 보면 초등지리권1은 주로 당시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 즉 국내 지리를 다루고 있다. 반면 초등지리권2에는 초등지리권1에서 전부 다루지 못했던 국내 지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규슈, 타이완, 남양군도, 관동주를 마저 다루고 일본 총설로 마무리 지은 후 세계 지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관한 지리 지식은 위치, 지형, 기후, 산업, 교통, 주민, 주요 도시 등으로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어 뚜렷한 지지(地誌)의 서술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두 교과서의 목차에는 각 장과 절의 제목뿐만 아니라 삽화 목록도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특이한 점은

초등지리권2의 마지막에 지구의 표면이라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 위도와 경도, 그것에 따른 계절변화, 기후, 시간과 관련된 지리 지식이 정리되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지적인 학습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중등학교로 이어지는 계통 지리의 지리 지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과학적인 지식이 담겨있는 자료로서 지리 교과서의 인상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지리제5학년용 및 제6학년용의 목차(표 1)를 보면 지도를 이용해 일제의 영역과 면적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제시된 후 각 지역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초등지리권1과 권2에서는 일제의 영토에 관한 설명이 초등지리권2까지 이어져 구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지리에 관한 내용이 초등지리제5학년용 한 권에 마무리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지리제5학년용에는 국내 지리뿐만 아니라 관동주, 만주 등의 세계 지리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동아라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 당시 일제가 진출하려는 세계의 지역 중 동남아시아에 관한 세계 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초등지리제6학년용은 중국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되어 세계 지리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황국 일본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마지막 장은 초등지리제5학년용과 제6학년용에 제시된 국내 지리와 세계 지리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정리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의 비교로 보면 초등지리제5학년용 및 제6학년용은 초등지리권1 및 권2에 비해 지지의 서술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목차에 삽화 목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교과서인 초등지리권1 및 권2, 초등지리제5학년용 및 제6학년용은 이상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장부터는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가 가진 특징을 밝혀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III. 일본 제국의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의 형성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작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지리 교과서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

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론에서 논했듯이 선행연구들은 지리 교과서의 서술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일제의 식민지 합리화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당시 지리 교과서에 시도되었던 식민지 합리화 시도를 교과서 내부 요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본 장에서는 지리 교과서 내부에서 일제의 식민지 합리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성된 전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리 지식의 보고로서 지리 교과서의 권위 강화

일본의 지리교육은 지역의 지명 물산의 단순한 암기하는 과목으로의 인상이 강하고, 지리적 사고력을 육성하는 교과서의 기능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지속해서 비판받아 왔다(井田仁康, 2003: 38).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리 교과서의 내용이 지리적 구성 방식, 즉 대륙별

로 대표적인 나라의 위치, 인구, 산업, 주요 도시 등을 나열하는 학습 방식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교육의 전통과 유사하게 주요 분석 지리 교과서는 지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지리적 정보와 세계정세에 관한 지리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지리적 지식의 나열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선 학습자에게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기 쉽도록 비교의 관점이 적용된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그림 1). 이와 같은 자료에는 통계 자료,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주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삽화 중심이었던 이전 교과서와 달리 교과서가 가지는 과학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기후를 설명할 때는 지역 비교가 가능하게 편집된 클라이모그램이나 계절 비교가 가능한 등치선도가, 산업에 관한 설명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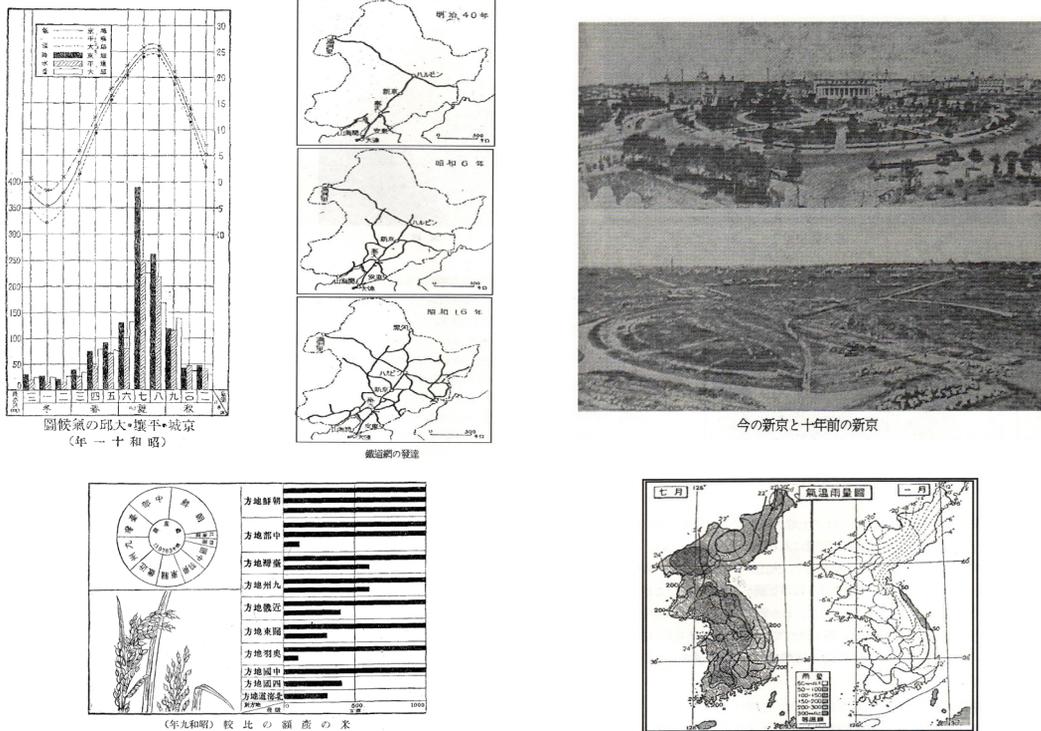


그림 1. 비교의 관점이 적용된 자료의 사례

출처: (상좌)경성, 평양, 대구의 기후도(1936년), 朝鮮總督府, 1940: 21, (상중)철도망의 발달, 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50, (상우) 지금의 신경과 10년 전의 신경, 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52, (하좌)쌀 생산액의 비교(1934년), 朝鮮總督府, 1940: 83, (하우)기온우량도, 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50.

하코다테 부근에는 시멘트 공장, 사포로에는 맥주 공장, 제마 공장, 무로란에는 제철소가 있어 각각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주로 원료가 풍부하고 석탄 및 수력전기를 획득하기 쉽기 때문이다(朝鮮總督府, 1940: 64).

4. 도쿄에서 고베까지

토카이도 본선을 달리는 기차의 창문을 통해 변해가는 경치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즐김과 동시에 산업, 교통, 도시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토카이도 본선으로 도쿄에서 고베로 가는 도중에 누구라도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은 후지산일 것입니다……스루가만의 연안에서 나고야에 도착하기까지 누마즈, 시미즈, 시즈오카, 하마마쓰, 도요하시, 오카자키 등과 같은 도시가 있으며 이 도시들과 그 부근에는 다양한 공업이 발달해……동쪽의 게이힌과 서쪽의 나고야 2대 공업지대의 중간에 위치해(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50-53).

미국은 아시아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지로서 40년 동안 필리핀을 지배해 왔지만,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반년 만에 우리 군이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였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218).

주위의 높은 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급류를 이루고 수량이 풍부하므로 여러 곳에서 수력발전으로 이용되어,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도야마를 시작으로 각지에 다양하고 새로운 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83).

부산에서 경성까지

……철도는 부산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향해 대구·경성·평양을 통과해 신의주로부터 압록강의 철교를 넘어 대안의 안동에 도착해 여기서 만주의 철도와 연결됩니다……부산은 인구 2십5만의 조선 제일의 무역항입니다……대구는 낙동강 중류의 분지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대구에서 금산을 거쳐 추풍령을 넘으면 대전이 나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10-112).

호주는 세계 제1의 양모 산지입니다. 메리노종의 양이 많고 이 종은 원래 건조지에 적합하고 습기가 많거나 우량이 1,000 미리 이상인 토지에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량이 너무 적은 곳, 예를 들어 500 미리 이하인 곳에서는 목초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주 동부 산맥의 서안에 있는 완만한 경사지는 비가 600 미리 정도 내리므로 양을 키우기에 좋은 곳입니다……밀 생산의 분포가 남부에 한정된 이유는 북만주와 비슷하게 비가 적은 온대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256-257).

번역 1. 나열하는 제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초등지리권1, 권2 및 초등지리지5학년용, 제6학년용에 나타난 시도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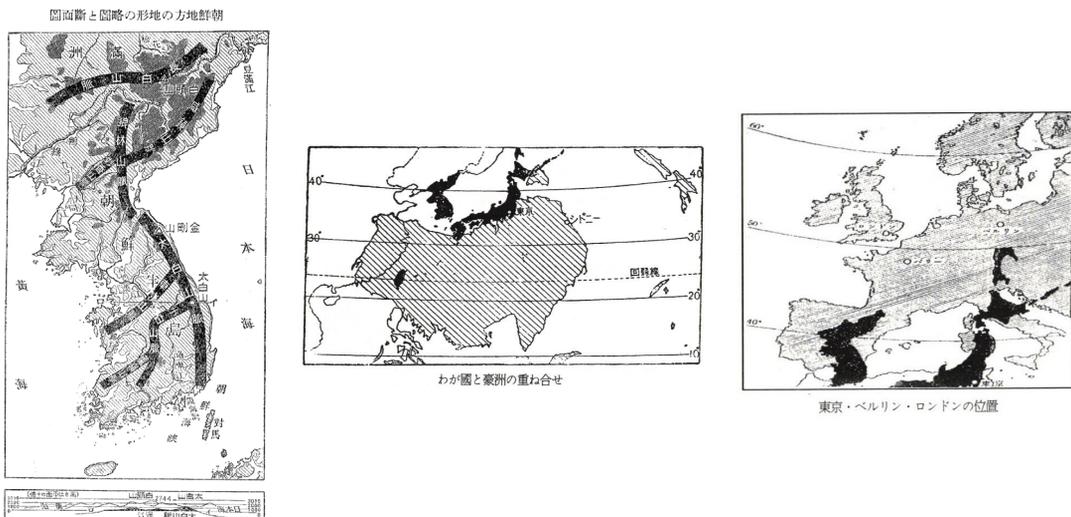


그림 2. 새로운 지리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진 자료의 사례

출처: (좌)조선지방 지형의 약도와 단면도, 朝鮮總督府, 1940: 5, (중)우리나라와 호주의 중첩, 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54, (우)동경, 베를린, 런던의 위치, 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75.

될 때는 생산액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나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간적 비교를 통해 지역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시기에 촬영된 경관 사진, 시기별 통계 자료 및 주제도가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지리적 서술 방식으로 인해 지리적 사상이 의미 없이 나열되지 않도록 지리적 사상을 연결하기 위한 맥락이 형성되었다(번역 1). 이와 같은 시도는 교수·학

습의 맥락과 지리적 사상 간의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수·학습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학습할 지역을 지역 구분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 학습할 지역이 차례로 등장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지리적 사상 간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지리 지식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지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 사상을 의미 있게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인도차이나 반도)의 독립국은 타이뿐이며 그 밖의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영지이다. 방콕은 타이의 수도이다.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영국의 영지로 세계교통의 요로에 해당하며, 영국에게는 동양에 있는 군사상의 요지이다(朝鮮總督府, 1941: 126-127).

(3) 인도

인도는 히말라야산맥의 남쪽에 위치하며 반도 상의 형태로 남쪽으로 돌출해 있다. 영국의 영지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朝鮮總督府, 1941: 131).

(1) 영국

영국은 그 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섬나라이지만 인도를 시작으로 해외의 수많은 곳에 영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영지와 다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그 영지나 여러 나라로부터 각종 원료를 수입해 그것을 가공하는 공업이 매우 발달했다……이와 같은 공업제품 대부분은 광대한 영지나 여러 나라에 다량으로 수출된다. ……

(2) 프랑스

프랑스는 그 본국이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인도차이나를 시작해 해외에 넓은 영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면적은 세계 제3위로 영국과 소비에트연방의 뒤를 잇는다. ……

(4) 독일

독일은 원래 해외에 넓은 영지를 보유했던 대국이었지만 세계대전의 결과 본국의 일부와 해외의 영지 전부를 여러 나라에 할양하게 됨에 따라 많은 철광 산지 및 탄광을 잃어 국력이 한때 크게 쇠퇴했다. ……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본국만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지만 둘 다 해외에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다. ……

유럽은……일반적으로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많고……공업의 발달은 특히 뚜렷하며 제철업, 기계제조업, 화학공업, 직물공업 등은 세계 제일의 수준이다. 이처럼 공업이 잘 발달한 것은 중부로부터 서부에 걸쳐 석탄과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그 외의 원료는 부족하므로 식민지로부터 다량의 원료를 수입하고 그 제품을 각지에 수출하고 있다(朝鮮總督府, 1941: 135-152).

뉴질랜드는 영국의 영지로 남북의 두 섬으로 나뉘어 기후가 온화하며 양모와 밀의 생산량이 많다. 이 생산물은 주로 본국인 영국으로 보내진다(朝鮮總督府, 1941: 196).

필리핀 미국은 아시아 방면으로의 나아가기 위한 기지로서 40년 동안 필리핀을 지배해 왔지만,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반년 만에 우리 군이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였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18).

인도양은 인도를 시작으로 호주, 아프리카의 동안 등 영국의 영토로 대부분이 둘러싸여 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33).

캐나다 미국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캐나다는 영국의 영토이지만 최근 미국의 기세에 눌려 거의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71).

전쟁을 통해 석유나 곡물 등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세력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 277).

번역 2. 초등지리권2와 초등지리제6학년에서 나타난 식민지 관련 내용 일부의 번역

마지막으로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적용된 자료가 제시되었다(그림 2). 이와 같은 자료로는 학습 지역의 지형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 지세도와 함께 제공되어 지표의 거시적 기록을 보여주는 지형 단면도를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위치와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 중첩이 적용된 지도가 활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초등지리권1, 권2 및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에는 다양한 시도가 적용되었다. 통계 자료, 주제도, 지형 단면도, 중첩이 적용된 지도 등은 지리 교과서가 가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강화해주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 및 지리 지식 간의 맥락 형성과 같은 지리 교과서의 새로운 시도는 교과서가 가지는 최신성의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최신성으로 포장된 지리 교과서는 학생에게 있어 그 권위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즉, 학습자는 지리 교과서의 지식을 비판적 사고 없이 진리로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 교과서의 권위 강화는 다음 장에 서술하게 될 지리 교과서 요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전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2.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식민지

분석 대상 교과서의 세계 지리에 관한 내용은 1941년의 초등지리권2와 1944년의 초등지리제6학년용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지리권1의 경우 각 대륙의 총론을 시작으로 대륙에 속한 주요한 국가들에 관한 지리 지식이 위치, 지형, 기후, 산업, 주요 도시 등의 항목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총론 및 각 국가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설명하는 식민지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서술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번역 2). 예를 들어 남동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태평양의 국가들에 대한 설명에는 독립국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의 식민지인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극단적일 때는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3줄로 구성된 뉴질랜드의 설명에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서술이 한 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국가들에 관한 서술에는 세계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 대륙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를 설명하는 7줄 중 2줄이

영지, 즉 식민지에 관한 설명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보유와 관련된 서술을 살펴보면 식민지의 보유와 상실 그리고 그 이용이 국가의 성쇠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를 이용해 국가가 부강해지는 구체적인 원리를 원료공급처와 시장으로서 식민지가 하는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44년의 초등지리제6학년용에 게재된 세계 지리 중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에 관한 내용의 양은 1941년의 초등지리권2에서 37쪽이었던 것에 비해 17쪽으로 줄었다. 또한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위치, 지형, 기후, 산업, 주요 도시 등과 같은 지리 지식과 더불어 설명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에 근거한 서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설명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이며 또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식민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민지의 확보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같은 서술은 지속해서 등장한다.

정리하면 초등지리권2 그리고 초등지리제6학년용 지리 교과서에는 식민지가 중요한 서술내용으로 다루어지며, 유럽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서술로부터 식민지는 당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전제가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될 교과서 서술내용과 상호 연결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IV. 일본 제국의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리 교과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가르쳐진 지리 교과서는 일본 제국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라는 정치적 선전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아시아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전술하였듯이 당시의 지리 교과서에는 세계의 정세와 지리 지식이 전달되며 새로운 지리 교육적 시도가 시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 교과서의 성격이 오히려 일제의 식민화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지리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지리정보와 그 이해를 돕는 새로운 지리 교육적 시도는 지리 교과서의 과

(조선의 교통은) 예전에는 극히 불편했지만 근년에 두드러지게 개선되었다. 주요한 도로는 개성으로부터……(朝鮮總督府, 194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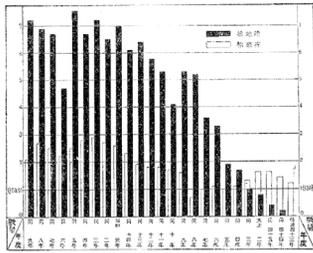


表 減 增 額 の 棉

조선 지방은 일반적으로 비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수목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삼림이 적고 산지의 대부분은 황무지였으며 평지도 관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년 사방공사와 식림 사업이 이루어져 경지가 두드러지게 넓어져 농산물이 많이 증가해 왔다(朝鮮總督府, 1940: 41-42).

(대만의) 산업은 일반적으로 평야가 넓고 교통이 편리한 서부지방에 번성했으며, 우리나라의 영지가 된 이후에 급속하게 발달했다(朝鮮總督府, 1941: 20).

(남양군도는) 토지가 좁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원래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통치하게 된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05)

(조선 북부는) 오랫동안 산업과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고 문화도 뒤떨어져 있었으며 내측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의 산업이 급속히 발달해 무수한 도시가 매일 발전을 지속해 그 모습이 새롭게 변화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21).

번역 3. 일제의 식민화와 식민지의 발전을 연관 짓는 서술 사례의 번역

* ()의 내용은 필자 추가

학생과 객관성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학습자의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지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지리적 사실로서 학습자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내용들이 지리 교과서에 수록됨으로 인해 학습자는 그것과 관련된 지리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리 지식과 합리적인 세계의 정세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도구로서의 인상을 형성하게 된 지리 교과서에서 일제의 아시아 식민지 확장 정책이 어떻게 합리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1. 일제의 식민지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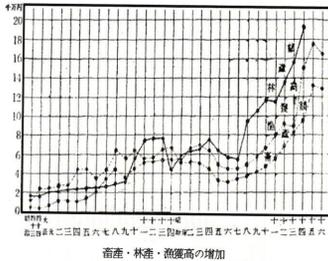
교과서 내용의 분석 결과 일제의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제의 식민 지

배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원인과 결과라는 직관적인 인과 관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징적인 표현과 함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초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발신하는 대상 즉 교과서의 서술이 가지는 권위를 객관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인정받게 만들면 된다. 따라서 이전 장에서 서술했듯이 교과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제가 선전도구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식민 국가의 산업 및 교통이 발전했다는 서술을 지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번역 3). 이와 같은 서술은 간접적 방식, 직접적 방식, 강화된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간접적 서술 방식은 지역에 관한 총론이나 개별 국가의 발전에 관해 설명할 때 식민화된 이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어휘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조선의 교통이나 도시의 발달에 관해 설명하는 문장에 식민지 시

조선의 약진

우리들의 동네나 마을의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노인에게 물어보면 그 모습이 몰라볼 정도로 훌륭하게 변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경지는 정리되었으며 각지의 도시가 급속히 발전해 산업도 교통도 예전과 비교해 완전히 그 모습이 새로워졌습니다.



도표를 보아도 최근 30년 동안의 약진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지금 조선은 우리 대륙 발전의 기지이며……이와 같은 약진은 실로 천황의 위세 하에 역대 조선총독부를 시작으로 지도의 임무에 있는 사람이 올라고 훌륭하게 지도했으며 또한 이것에 부응해 사람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이 지금과 같이 빛나는 발전을 이룩한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겨 조선이 우리나라의 대륙 전지 기지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층 격려해야 합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29-131).

번역 4. 일제의 조선 식민화와 조선의 발전을 연관 짓는 서술 사례의 번역

기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근년’, ‘최근’ 등의 어휘가 활용되어, 먼 과거가 아닌 일제의 식민지가 된 시기에 조선이 급속히 발달했다는 의미가 성립한다. 이러한 서술내용은 일제의 식민화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을 지라도 학습자가 지역의 발전과 식민화를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적 방식에는 설명하는 지역이 일제의 식민화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했다는 서술이 포함된다. 즉 일제의 식민화와 지역의 발전을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정의한 서술이 지리 교과서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편입된 대만이나 태평양의 섬을 지리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 일본의 영토가 된 뒤에 해당 지역의 산업 등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서술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 방식의 서술은 인과관계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되므로 당시의 학습자가 일제의 식민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질의 촉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방식에는 일제의 식민화와 지역 발전을 관련짓기 위해 서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료를 동시에 제시하는 수단이 동원되었다. 제시된 자료는 주로 연도별로 산업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 그래프 자료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농업과 관련된 총설에는 산림 및 관개 시설의 정비 등으로 인해 근년의 농산물 생산량이 증대되었다는 서술과 함께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이후 목화의 증산이 뚜

렷이 파악되는 그래프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식은 지리 교과서의 지리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식민화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인식되도록 이끌었을 가능성이 예측된다.

한편 1940, 1941년의 초등지리 권1, 권2와 달리 전시 체제가 공포되어 학교 교육에 그 영향이 미치는 시기에 제작된 1944년의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에는 일제의 식민화와 조선의 발전을 연결 짓기 위한 서술이 한층 더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번역 4). 1940년의 초등지리 권1에는 당시 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교육의 자료라는 점이 고려되어 조선 지방이라는 항목이 교과서 전체 목차의 두 번째에 있었다(표 1). 또한 그 분량도 39페이지 분량이었으며, 이는 교과서 전체의 각 항목에 배정된 페이지 수 중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했다. 첫 번째 항목이 대일본제국으로 일제의 영역, 지역 구분 정도를 제시하는 두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었음을 고려하면 조선 지방을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격적인 교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1944년의 초등지리제5학년용에서 조선은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11번째 항목에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이전에 비해 27페이지로 삭감되었다. 그러나 내용이 삭감되어 조선 지방의 지지적 내용은 줄었지만, 식민지 이후 조선의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이 조선의 약진이라는 항목으로 신설되어 설명되고

자바섬의 사람들은 300년간 소수의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 제멋대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10).

인도는 물산이 풍부함에도 다수의 인도 사람들은 실로 가난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120년 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영국은 이러한 여러 종교의 교도들을 서로 반목시키고 또한 인도 내에 있는 왕의 영토와 영국의 직할지의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어 인도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엾은 인도 사람들도 지금이야말로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대동아 건설은 모든 아시아사람이 자신의 장소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31-232).

(사모아섬의 사람들은) 영국인이 오고 여러 가지 병에 감염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홍역으로 인해 한 번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은 예도 있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52).

(호주에서) 이전부터 살던 주민은 100만 명 있었지만 약 백년 간 그 수가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흘러들어 온 영국인과 그 자손들이 주민을 괴롭혀 매우 잔혹하게 처우했기 때문입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54)

번역 5. 유럽 식민 지배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사례의 번역

* ()의 내용은 필자 추가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일제의 식민화 이후 조선이 발전했다는 서술이 간접, 직접 및 강화된 방식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발전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즉 대륙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에는 일제의 식민화로 인해 식민지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직접, 간접 및 강화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등장했다. 더욱이 1944년 출간의 초등지리제5학년용에는 조선의 식민화와 조선의 발전을 연결 짓기 위한 서술이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서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리 교과서의 이와 같은 시도에는 일제의 식민화라는 원인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간주해, 조선의 발전을 위해 대륙 전진 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선의 학습자에게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2. 유럽의 식민화 및 침략에 대한 부정적 서술의 강조

일제의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분석 교과서에 나타난 두 번째 방법은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강조하는 것이다(번역 5). 예를 들어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영국의 식민화로 설명하거나,

네덜란드 식민 지배의 가혹함 그리고 영국인의 전염병 및 탄압으로 인한 원주민의 대량 사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직접적 수단이기보다는 유럽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일제의 식민 지배가 가지는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나게 하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전 절에서 언급한 일제 식민 지배의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는 직접적 방식과 동시에 활용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유럽 국가의 식민화가 가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한편,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제의 식민화를 서술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으로써 식민화가 필연적이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제의 식민화가 유럽의 식민화보다 바람직하다는 왜곡된 명제를 성립시키게 된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리 지식의 보고로서 가지는 지리 교과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습자는 이와 같은 왜곡된 명제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유럽 식민화의 부정적 결과에 근거한 간접적 방식은 일제가 이미 식민화한 지역이 아닌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에 따라 식민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독립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볼



マンダレー入城とビルマ人の協力

(원편 삽화: 만달레이 입성과 미얀마 사람들의 협력, 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39)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공략에 따라 영국의 모든 세력을 쫓아내어 다시 독립국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주민은 우리나라를 매우 신뢰해 자진해서 대동아 건설에 협력하고 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a; 김순전 외, 2017b: 138).

외국의 국가들이 중국을 약보아 나라가 위협해졌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이를 도우려고 하였으며 중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원래 중국은 넓어서 내적인 통일이 되지 않고 예로부터 쉽게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은 불쌍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같은 중국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중국의 청소년 중에서도 일본인과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187)

지금까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제멋대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용히 우리나라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싱가포르와 인도양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대동아전쟁이 시작되자 황군은 바로 북쪽의 말레이반도로 공격해 들어가……미국, 영국, 네덜란드 세력을 모두 제거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137, 199).

(동인도와 필리핀의) 섬들은 오랜 기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영지였기 때문에 주민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겨우 몇 개월 만에 황군의 힘으로 인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세력은 축출되어 이후 주민은 우리나라의 인도에 따라 넘치는 희망을 품고 일하게 되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b; 김순전 외, 2017b: 207).

번역 6.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지역에 대한 일제 식민화를 합리화하는 사례의 번역

*()는 필자 삽입

수 있다(번역 6). 예를 들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침략과 식민화로 인해 고통받던 동인도 지역,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일본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내용에는 해당 지역 및 국가들의 주민이 일본의 도움을 원했으며 유럽 국가들을 축출하는데 자진해 도움을 주었다는 서술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각 서술에는 감정적 술어가 포함되거나 일본에 대한 긍정적 또는 우월한 이미지를 담은 선동적 자료들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간접적 방식은 우선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한 유럽의 식민화 및 침략을 제거한 주체로서 일본을 위치시킨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본의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그 과정에 각 지역 주민들의 주체성을 가미시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식민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일본이 식민화하게 될 대동아공영권의 지역에 대해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유럽의 식민화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1940, 1941년의 초등지리권1, 권2에는 발견되지 않으며, 1944년의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1944년의 지리 교과서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전시체제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정보 및 자료가 활용되어야 하는 지리 교과서에 일본군의 입성을 반기는 삽화와 감정적인 술어 등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지리 교과서가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의 지리 교과서는 유럽의 식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식민지의 식민화 또는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바탕으로 점령하게 될 식민지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당시 지리 교과서의 성격은 1940 및 1941년의 초등지리권1, 권2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주요 분석 교과서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1944년의 초등지리제5학년용, 제6학년용의 특성에 해당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의 내용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나타내는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차 조선교육령기부터 전시교육령이 공포되기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지리 교과서, 『초등지리권1(初等地理卷一)』(1940) 및 『초등지리권2(初等地理卷二)』(1941), 『초등지리제5학년용(初等地理第五學年用)』(1944a) 및 『초등지리제6학년용(初等地理第六學年用)』(1944b)의 지리 교과서를 주요 분석 교과서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의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지리 교과서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에는 통계 자료, 주제도, 단면도, 중첩과 같은 자료가 사용됨으로써 지리 교과서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이,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리교육의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리 교과서의 최신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당시 지리 교과서의 성격은 지리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가지는 교육적 권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서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제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에는 세계 지리의 서술 중 식민화를 세계적이고 필연적인 흐름으로 묘사하고, 식민지 확보를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식민지의 확보가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전제를 형성하게 했다.

세 번째로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에는 일제의 식민지가 식민화로 인해 발전했다는 내용이 직접, 간접 그리고 강화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등장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상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와 상호작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지리 교과서의 진술이라는 점으로 인해 당시 우리나라 학생은 일제의 식민화 이후 삶이 나아졌다는 교과서의 서술을 신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식민화가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흐름이므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에

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제에 의해 식민화가 진행된 지역에 있어 일제의 식민화를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분석 대상 지리 교과서 중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제작된 1944년의 초등지리제6학년용에는 유럽의 식민화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같은 서술 역시 상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와 같이 활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신뢰성이 높은 지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의 식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쉽다. 다음으로 식민화가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흐름이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럽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으므로 유럽을 대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명제가 형성된다. 즉,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의 세력을 대신해 식민종주국이 되려는 일제의 의도를 합리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 내용 요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일제의 의도를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당시 지리 교과서의 도구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식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교육령과 지리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당시의 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수업지도안 등과 같은 수업 실행과 관련된 자료와 상호 비교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언급해 둔다.

참고문헌

- 강명숙, 2007,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29(1), 1-24.
- 강명숙, 2009,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7-34.
- 김순전·사회영·박경수·장미경·김서은·차유미·여성경, 2017a, 초등학교 <地理> 교과서 원문(中), 제이앤씨.
- 김순전·사회영·박경수·장미경·김서은·차유미·여성경, 2017b, 초등학교 <地理> 교과서 원문(下), 제이앤씨.
- 김진숙, 2012, “일제강점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문서 체계 분석-총론과 교과목의 분화와 독립-”, 한국교

- 육사학, 34(1), 27-55.
- 박제홍, 2018, “4년제 보통학교를 통한 일제의 동화와 차별교육-조선총독부 편찬 4년제 보통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83, 167-187.
- 사회영, 2015,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地理」 교과서의 변화考察”, *일본어문학*, 67, 341-362.
- 신수경, 2009,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 삽화 연구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표현방식의 변형”, *미술사논단*, 29, 249-272.
- 유철·김순진, 2018, “일제강점기 초기 초등지리 교육 고찰-조선총독부편찬 일본어·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76, 5-25.
- 이병담, 2010,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주의와 식민성”, *일본어문학*, 47, 493-509.
- 허재영, 200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43-64.
- 장미경, 2016, “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에 表象된 空間 '滿洲-조선총독부 편찬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41, 105-122.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井田仁康, 2003, “地理的な見方・考え方”, 村山祐司編著, 21世紀の地理-新しい地理教育-, 朝倉書店, 26-52.
- 久保田優子, 2000, “朝鮮總督府初期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時勢及民度」について”, 九州産業大学國際文化学部紀要, 17, 15-32.
- 國家總動員法(昭和十三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五十五号), 1938.3.31.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listPhoto?LANG=default&BID=F0000000000000sd035654&ID=&TYPE=>, 2022년 12월 3일 접속).
- 決戦非常措置要綱ニ基ク学徒勤勞動員ニ関スル件(昭和十九年四月十七日文部省訓令第十一号), 1944.4.17.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982.htm, 2022년 12월 3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20,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兒童用, 凸版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23, 普通學校地理補充教材全兒童用,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www.emuseum.go.kr/main>,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32, 初等地理書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33, 初等地理書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37a, 初等地理書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37b, 初等地理書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0, 初等地理書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1, 初等地理書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2a, 初等地理書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2b, 初等地理書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3, 初等地理書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2일 접속).
- 朝鮮總督府, 1944a, 初等地理第五學年用,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44b, 初等地理第六學年用,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官報第三百四號, 1911.9.1., 朝鮮教育令(明治四十四年八月二十三日勅令第二百二十九號, 1911.8.23.) (<https://www.nl.go.kr/>, 2022년 11월 29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第二千四百七十七號, 1920.1.12., 朝鮮教育令中改正(大正九年十一月九日勅令第五百二十九號, 1920.11.9.)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2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2.2.6., 朝鮮教育令(大正十一年二月四日勅令第十七號, 1922.2.4.)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2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9.4.19., 朝鮮教育令中改正(昭和四年四月十八日勅令第八十二號, 1929.4.18.)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2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38.3.4., 朝鮮教育令(昭和十三年三月三日勅令第三百號, 1938.3.3.)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3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第四千二百五十四號, 1941.3.31., 國民學校令(昭和十六年二月二十八日勅令第四百四十八號, 1941.2.28.)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3일 접속).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45.7.1., 戰時教育令(昭和二十年五月二十一日勅令第三百二十號, 1945.5.21.) (<https://www.nl.go.kr/>, 2022년 12월 03일 접속).

접 수 일 : 2022. 12. 14

수 정 일 : 2023. 01. 18

게재확정일 : 2023. 01. 18

교신: 양병일,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

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biyang@bnue.ac.kr, 051-500-7226)

Correspondence: Byung Il Yang, biyang@bnue.ac.kr